

# “민주주의 위기” 4·19, 5·18 계엄 경험자들이 본 오늘

12·3 계엄에 ‘그 시절’ 고통 소환 4·19혁명 당시 앞장서서 투쟁해 오월광주 최전선서 시민군으로 계엄군 집단구타에 가족잃기도 “대명천지에 있을 수 없는 일”



김영웅 호남4·19혁명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45년 만의 계엄령이 국회의 저지로 해제된 가운데,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비상계엄을 경험한 이들은 자유가 억압된 ‘그 시절’이 떠올랐다고 분노를 표했다. 이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오늘날 민주주의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 ●“1960년 4월처럼 먼저 앞장설 것”

1960년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이 자행한 3·15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일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4월19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서울 지역에 선포한 계엄령은 오후 5시부터 광주와 부산, 대전, 대구, 전주 등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됐다. 당시 광주공고 3학년이었던 김영웅 호남4·19혁명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는 4·19혁명의 삼엄한 분위기를 바로 어제 일인 듯 세세히 기억했다. 그는 “3·15의거 이후 올바르게 된 민주주의를 가져보자는 국민들의 바람이 고조됐다. 광주는 고통학생들이 중심이 돼 정권타도에 대한 열기가 높아졌다”며 “정부

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민주화운동으로 촉발된 최초의 계엄이다”고 회상했다. 그날 거리로 나가는 과정에서 팔과 머리에 입은 중상은 오랜 상흔으로 남아 그를 평생 괴롭히고 있었다. 이어 “거리에는 군인과 경찰이 깔렸고, 교사들은 학생들이 다칠까 학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며 “불의를 잡는 것은 학생의 도리가 아니라 마음대로 학우들을 이끌고 탈출하던 중 큰 부상을 입어 팔을 절단할 뻔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있었던 17번의 계엄을 모두 겪어온 김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형’로 밝혀진다면



김범태 국립5·18민주묘지소장.

다시 거리에 나가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내보였다. 그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무시한 ‘내란범죄’라고 규탄하는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며 “수많은 이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사실이 수사를 통해 확실하게 밝혀진다면 4월의 그 날처럼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월 떠올라 고통으로 밤 지새워”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고, 다음날 오전 4시10분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전국적인 민주화 열망을

억제하기 위해 1980년 5월18일 0시를 기해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광주의 들끓는 민의는 5·18민주화운동으로 폭발하게 됐다. 1979년 당시 26살의 나이로 고흥군 소속 공무원으로 일하던 김범태 국립5·18민주묘지소장은 박 전(前)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듣게 된 후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차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국민의 기대와 달리 현실은 더 큰 억압과 고통이 동반된 새로운 군사정권의 시작이었다. 김 소장은 “당시는 정권 비판을 하거나 집회를 열 경우 바로 잡혀가는 시대였다. 그런 엄혹한 시대를 살던 중 ‘드디어 나라가 변화할 수 있겠구나’ 싶어 만세를 불렀다”며 “하지만 혼란스러운 정국이 지속되다가 전두환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이듬해 조선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해 생업을 병행하던 김 소장은 5·17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 이후 시민군으로, 시민협상 대표로 오월광주의 최전선에 섰다. 그는 “당시의 참담함을 헤아릴 수 없다. 총에 맞은 시민군들의 시신을 가까이서 목도하고 직접 수습했다”면서 “그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끔찍함이나 계엄의 무서움을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며 두눈을 질끈 감았다. 김 소장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큰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계엄선포 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또 다시 총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오는가’였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이번 일을 획책한 이들은 민주열사들의 피와땀으로 만들어진 우리 민주주의를 우습게 여긴 것”이라며 “입으로는 오월정신을 운운하지만, 그것을 마음에 새겼다면 어떻게 대명천지에 이런 일을 꾸밀 수가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계엄군의 구타로 인해 오빠를 잃은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도 오늘날 민주주의가 다시 크게 위협받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관장은 “당시 대학교 1학년이던 오빠가 귀가하던 중 공수부대원 8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서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 온 가족들이 오빠를 치료하기 위해 애썼지만, 결국 시설에서 사망했다”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TV 속 계엄군의 모습을 보며 1980년의 5월이 떠올라 고통으로 밤을 보냈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21세기에 일어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투표조차 하지 않은 여당도 공범이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다.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예정된 탄핵안 2차표결에는 꼭 참여해 국민들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 도량발호 跳梁跋扈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뛰다>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비상계엄 사태’ 윤 정권 직격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뛰다’는 뜻의 ‘도량발호(跳梁跋扈)’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혔다. 교수들은 “권력자는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데 권력을 선용해야 함에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수신문은 9일 전국 대학교수 10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도량발호’가 41.4%(450표)의 지지를 얻어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혔다고 밝혔다. 도량발호는 단일 사자성어가 아닌 ‘도량(거리낌 없이 함부로 날뛰어 다님)’과 ‘발호(권력이나 세력을 제멋대로 부리며 함부로 날뛰)’ 등으로 각각 달리 활용하던 고어가 붙으며 만들어졌다. 도량발호를 추천한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교수는 “권력자가 지켜야 할 규범의 본질은 위임 받은 권력을 선용해서 국민

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와는 판이하다. 권력자들은 자신이 곧 권력의 원천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악의 사례가 12월3일 심야에 대한민국을 느닷없이 강타한 비상계엄령”이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이런 무도한 발상과 야만적 행위가 아직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이 섬뜩하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교수신문은 다만 도량발호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만을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은 비상계엄 선포가 있기 직전인 지난 2일까지 진행됐다. 도량발호를 선택한 교수들은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과 친인척 보호, 정부·기관 장의 권력 남용, 검찰독재, 굴욕적인 외교, 경제에 대한 몰이해와 국민의 삶에 대한 무관심, 명태군·도술인 등 사인에 의한 나라의 분열 등을 추천 사유로 꼽았다. 뉴스시

### 尹, 관저 칩거 여론 동향 주시... 대통령실은 침묵

12·3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하고 임기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칩거를 이어가고 있다. 9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도 관저에 머물면서 여론과 정치권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 7일 오전 비상계엄 관련 세 번째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청사에 잠시 머문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관저에 머물며 탄핵소추안 표결

불성립 폐기, 한덕수 국무총리·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담화문 발표 등을 지켜 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청사에 오지 않으면서 매주 월요일마다 열렸던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는 이날 열리지 않았다. 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모여 현 정국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의 회의는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월요일 주례 오찬회동도 열리지 않았다. 서울=김선욱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과 구청장, 종교계, 학계, 5·18단체, 시민단체 등 광주연석회의 대표자들이 9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즉각 구속, 내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 “12·3 포고령은 80년 5월 17일 포고령과 쌍둥이”

강 시장, 종교·시민단체 등과 공동성명 김 지사, SNS 통해 연일尹 탄핵 촉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광주·전남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즉각 구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9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각 기관장, 대학 총장, 종교 지도자, 5·18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등이 모인 ‘광주시 연석회의 참가자’ 일동은 5·18민주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요구했다. 소문 광주불교연합회장은 “계엄 선포 즉시 광주는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를 개최해 계엄 무효를 선언하고, 군·경의 시민 보호를 요구했다”며 “이는 5·18 항쟁의 정신을 잇는 일이자 광주의 시민역량을 총결집한 일”이라고 평

가했다. 원순석 5·18 기념재단 이사장 또한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12·3 포고령이 80년 5월17일 발표된 ‘계엄포고령 10호’를 따라 만든 ‘쌍둥이 포고령’이라는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시장은 “80년 5월을 함께 이겨냈듯이 2024년 계엄이 선포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단결해 끝까지 함께 하자”며 “오는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전남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락가락 한동훈, 국민 배신하더니 국정정에 대해선 무개념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한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주 1회 이상 회동을 정례화해 경제, 외교, 국

방 등 국정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발표하는 것을 보니 여기가 없다”며 “헌법에도 없는 권한 행사를 의기양양 떠드니 완전 무개념 법조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말하는 ‘질서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탄핵 밖에 없다”며 탄핵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밤 10시23분 반헌법적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당혹스럽고 참담하기 그지 없다. 민주주의가 참혹했던 1980년 그 이전 군사정권 시절로 후퇴했다”고 밝힌 데 이어 탄핵 표결을 전후로 사흘 연속 SNS를 통해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표결 전날인 지난 6일 “최대한 빠르게 탄핵함이 타당하다”고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촉구한 데 이어 7일 표결 무산 이후엔 “분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병하·오지현 기자